

# 현대차, 인니 전기차 시장 선두 '우뚱'... 현지 생산 통했다

출시 1년 만에 전기차 1위 달성  
인니 누적 판매량 3913대 기록  
일본차 독점 체제 균열 평가도

현대자동차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트렌드를 주도하며 전기차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현대차는 전기차(아이오닉 5)의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추고, 출시 1년 만에 전기차 1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7월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3913대로 시장 점유율 56.5%를 기록했다.

지난해 현지 전기차 점유율 1위였던 중국 전기차 업체 우림자동차(1944대·28.1%) 점유율의 두 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다.

이는 아이오닉 5의 현지 생산과 판매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현대차는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의



2022년 3월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앞줄 왼쪽 첫 번째)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의 박수를 받으며 전기차 '아이오닉 5'에 기념 서명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첫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2억7700만명)으로 시장 잠재력이 풍부할 뿐더러,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생산거점 역할도 기대된다. 아이오닉5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한 최초의 전기차 모델이기도 하다.

현대차는 전기차 핵심 소재인 니켈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 도약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전동화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식에서 아이오닉 5 차량에 기념 서명을 남기고 "아이오닉 5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양산을 축하하기도 했다.

특히 2024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건설 중인 배터리셀 합작공장이 가동되면,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는 전기차 성장을 바탕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추격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HMID)은 인도네시아 내 자동차 판매 순위를 2021년 13위에서 2022년 8위로,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위로 계속해 끌어올렸다.

이 기간 판매대수는 2021년 3005대에서 현지 생산이 시작된 2022년 3만 1965대로 10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1~7월 누적 판매대수가 2만 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현대차가 3.4%로 도요타(1위, 32.5%), 다이하쓰(2위,

19.6%), 혼다(3위, 14.5%), 스즈키(4위, 8.0%), 미쓰비시(5위, 7.6%) 등 주요 일본 업체들과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일본차가 5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해 견고하게 다져온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아세안 지역 공략도 적극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자동차공업협회(GAIKINDO)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1~7월 3만 114대의 인도네시아산(産) 자동차를 아세안, 아중동 등 인근 해외 시장에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량을 70.0% 늘렸다.

이는 올해 7월까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판매한 2만 65대보다 50% 이상 큰 규모로, 인도네시아 공장은 향후 현대차의 주요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공장을 기반으로 6억 7000만명에 달하는 인구, 풍부한 자원 등 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 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LG, 반도체 기판 기술 '정면대결'

국제PCB·반도체패키징산업전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술 승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중요성 높아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반도체 기판 기술력을 겨룬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KPCA쇼) 2023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KPCA쇼는 국내 최대 기판 전시회다.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케이와이엑스포가 주관한다.

양사는 반도체 기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술력으로 정면 대결을 펼친다. FC-BGA는 반도체를 '플립칩' 방식으로 연결해 발열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고집적 반도체 기판이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서버용 FC-BGA 양산 업체다. 일반 FC-BGA보다 면적은 4배, 내부 층수는 2배에 달한다.

LG이노텍은 미세 패터닝과 초소형 비아 가공기술 등 독자적인 기판 구현



삼성전기 KPCA쇼 부스.

기술로 높은 회로 집적도를 자랑한다. 기판 회로 물질을 최적화해 면적 확대로 발생하는 휨 현상도 최소화했다. FC-BGA 기판존을 부스 맨 앞에 배치하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성전기는 모바일 IT용 초소형 고밀도 반도체 기판도 전시한다. 기판 내부에 코어를 제거해 두께를 50% 줄인 FCCSP와 기판에 여러개 반도체 칩 및 MLCC 등 수동 부품을 내장한 SiP도 소개한다.

차세대 패키지 기판 플랫폼 '시스템 온 서브스트레이(SoS)'도 있다. 2개 이상 반도체 칩을 기판 위에 배열해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는 초미세화 공정 패키지 기판이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기 패키징기술연구소장인 김우수 부사장은 "반도체의 고사양과 고성능화 요구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기판이 반도체 성능 차별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삼성전기는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FCBGA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제조기술을 지속 발굴해 품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FCBGA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KPCA 협회장인 정철동 사장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FC-BGA와 함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등 혁신 기판 제품을 선보인다.

상담센터로 구성된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향후 건설 예정인 호반건설 아파트 '호반 씨뿔'에 볼트업을 구축·운영하고, 충전기 관련 신기술 솔루션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건설사가 건축 설계 단계부터 협업함으로써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여 고객 경험은 물론 전기차 대중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기자 echo@

## LGU+,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울 초 'EV충전사업단' 전담 신설

LG유플러스는 호반건설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울 초 CEO 직속 'EV충전사업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

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VoltUP)'을 선보이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다. 볼트업은 ▲LG전자, LS일렉트릭 등 기술력이 입증된 충전기 제조사들의 고품질 전기차 충전기 ▲충전 예약, 완충 알림 발송 등이 가능한 앱 플랫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시스템 및

## SKB, 양자암호 전용회선 서비스 출시

양자키분배·양자내성암호 동시 제공

SK브로드밴드가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기술의 전용회선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사업자(약관신고 기준)가 되었다고 5일 밝혔다.

양자보안통신은 양자의 특성 중 하나인 불확정성과 복제가 불가능한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있다.

양자키분배(QKD)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자 가진 양자키 분배장치를 활용해 암호키를 동시에 생성해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반면, 양자내성암호(PQC)는 해독하는 데 수억년이 소요되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소프트웨어로도 구현 가능해 QKD보다 더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다. 보안, 비용 효율 및 편리성 측면에서 양 기술은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작년 7월 QKD와 올해 6월 PQC 전용회선 서비스의 약관신고를 완료, 두 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맞춤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가기관·공공·의료·금융 등 대형 고객의 경우, 보안성이 뛰어난 QKD전용회선을, 중·소형 기업의 경우 별도 장비 설치 없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용이한 PQC전용회선을 선택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SK E&S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워라벨 유지 등 노동환경 개선 노력"

SK E&S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SK E&S는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인증패를 수상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고용현황,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정

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매년 10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사 우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SK E&S는 그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먼저 SK E&S는 지난 2019년부터 '자율좌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구성원들이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근무방식을 선택하고 근로시간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